

광주 자원봉사단, 경북 의성 산불피해 긴급 복구

120여명 파견... 비닐하우스 폐기물 정리 등 봉사활동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긴급 복구를 돕는다.

광주 자원봉사단은 28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 등을 찾아 폐기물 정리 등 신속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전국 16개 시·도의 ‘온기나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76명, 기업 협의체 10명, 광주시 새마을회 20명, 호남대학교 의용소방대 10명 등 총 120여 명 규모다.

참가자들은 비닐하우스 폐기물 처리 및 정리 작업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나서며,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활동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위로를 전하고, 범시민 협력의 힘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청송군과 산청군에 응급구호키트, 광주명인김치,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박도일 기자

북구,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기부

주민·공직자·단체·기업 등 각계각층 온정 모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여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액은 역대 최약이라고 평가받는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이웃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날 27일 산불 피해 지역에 신속하

게 복구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주민, 공직자, 단체, 기업 등 지역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져 한 달여 만에 1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이게 되었다.

이는 광주 자치구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성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주민 긴급 생계 지원비 및 피해 지역 복구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날 말 화마로 인해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경남 산청, 하동과 경북 청송, 영덕 등의 이재민에게 총 8천여



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바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모금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주민, 공직자 및 지역의 여러 단체,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구에서 보내는 온정이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관광두레 참여 주민들 ‘상품 출시’ 임박

정부 주관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 중인 광주 남구 관내 주민사업체 3곳이 상반기 법인 설립과 함께 하반기부터 지역 색깔을 입힌 브랜드 관광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관광두레 사업에 함께하는 관내 주민사업체는 처음사랑과 승촌관광두레, 마이드림 3 곳이다.

관내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로, 지난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사업체별로 최대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각종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공모 선정 후 1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법인 설립을 비롯해 상품 출시도 임박하고 있다.

먼저 체험 상품을 준비 중인 처음사랑

은 법인 설립을 사실상 끝마친 상태다. 양림동 선교 역사 자원과 찬송가를 융합한 순례길 프로그램으로, 양림동 일대를 걸으면서 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갖는 상품을 내놨다.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올댓트레블’ 박람회에 참가해 상품 홍보에 나서며, 정식 상품은 오는 9월에 선보인다.

승촌관광두레와 마이드림은 사업체 이름을 비논의의 식탁과 컬러브릿지 협동조합으로 변경한 뒤 오는 5월에 법인 설립까지 매듭지를 계획이다.

비논의의 식탁은 대촌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생산한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 당근리채 미나리 김밥과 승촌 배레몬 에이드 등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일 기자

서구, ‘열두 달의 어린이날’ 특별전 개최

어린이날 기념, 아동 존중 문화 확산과 아동친화도시 실현 앞장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제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5월 5일까지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두 달의 어린이날’ 특별 아동권리 그림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 어린이박물관 ‘상상나라’가 기획한 콘텐트를 기반으로 서구청이 지역 아동들과 함께 재구성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한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서구청어린이집 아동들이 ‘우리에게는 매일이 어린이날’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은 관람객이 아동의 눈높이에서 본 꿈과 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 곳곳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조항과 아동권리에 관한 명언을 배치해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은 “이번 전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서구의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존중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전시회를 관람하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2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취득한 이후 All KIDS ZONE 조성,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는 상위단계 재인증을 준비하며 아동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미로센터서 수채화·한국화 배워보세요!”

아동·성인 대상 ‘2025 미로 아트스쿨’ 문화예술교육사업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5월부터 관내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 특화(수채화·한국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25 미로 아트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술학교를 콘셉트로 한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기존 어린이·청소년 위주로 운영됐던 미로센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2025 미로 아트스쿨’은 초·중·고등학생과 더불어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2025 미로 아트스쿨’은 한국화와 전통 채색화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 ‘미술반 먹놀이’와 수채화 기초부터 시작해 동구 일원을 직접 다니며 야외 스케치를 경험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미술반 동구 산책’으로 구성됐다.

‘미술반 먹놀이’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미술반 동구 산책’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각 2회차씩 총 40회차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12월에는 미로센터 1층 전시공간인 미로 1에서 결과전을 통해 수업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미로센터 홈페이지 내 알림 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미로센터에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로센터 (☎062-608-2132)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폭넓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전남새마을회, 지역 발전·활기찬 전남 실현 앞장 다짐

제창 55주년 기념식... 새마을운동 정신 되새기고 화합 다져

전라남도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2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남새마을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 22개 시군 8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화합을 다졌다.

기념식은 개회선언,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회장 기념사, 내빈 축사, 홍보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56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군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양재원 회장은 “새마을 가족은 처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한결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활기찬 전남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새마을운동은 지난 55년간 ‘잘 살아보세’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새마을가족의 헌신과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새마을운동이 지속해서 계승·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새마을회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 범도민 운동, 전남 우수농산물 알리기, 탄소중립 실천 운동, 영·호남 교류 활동, 재난 구호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의 날은 지난 1970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 제창일을 기념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15회째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